

오늘 오늘 오늘이라
 들도 좋아 오늘이여
 오늘 오늘 오늘이라
 날도 좋아 오늘이여
 매일 장삼 오늘이민
 성도 언말 가실서냐?
 오늘 날은 날이 좋아
 들 중에도 상들이여
 날 중에도 상날이여.
 오늘 오늘 오늘이라
 들도 좋아 오늘이여
 오늘 오늘 오늘이여
 날도 좋아 오늘이여
 매일 장삼 오늘이면
 성도 언말 가실서냐
 들 중에도 상들이여
 날 중에도 상날이여
 매일이는 하늘 사름
 장삼이는 지하 사름
 매일이는 남조이고
 장삼이는 예조우다.
 옥황이는 승년지고
 지황에는 시절 좋아
 매일이광 장삼이는
 지황에 얻어먹으레 오라
 날 존 날은
 일을 하여 얻어먹되
 쿡을 주민
 돈 혼푼씩 거시리고
 비온 날은
 신을 삼양 얻어먹되
 쿡을 주민
 돈 혼푼씩 거시리고
 얻어먹영 살았수다.
 놈의 일 혁영

얻어먹으멍 살단
매일이광 장삼이는
죽연
저싱왕이 들어간
일쿰 거시린 건
저싱 창궐 7득
덥쳐 두어졌구나.
매일이광 장삼이는
저싱 부제 되었수다.
세민황제 시절에는
놈의 공훈 것만
하영 먹은 세민황제제가
죽연 사흘만이
저싱 가난
저싱서 받을 빚은
넘어가는
애기 낳은 예조
찍 훈뿔 준 것밖이
엇어지고
“나도 도라.
나도 도라”.
저싱 빚을 찻자가니.
빚을 잡아
인간으로 나올 수가
엇어지였수다.
저싱빚 재운 세민황젠
놈의 일하연 얻어먹으멍
일쿰 거시리연
저싱 부제 된
매일이광 장삼이안티 가고
스정하연
저싱돈을
창젯문 올안 빚져놓고
염여대왕신디
저싱빚을 갚아두고
사흘만이 깨어나니
인간으로 돌아오고
창젯문 올라

세민황제신디
이싱돈 안내여.
저싱 간
매일이광 장삼이를
청혀여 놓고
도임상을 출르놓와
세민황젠 저싱 빛을
매일이광 장삼이안티
갸았더니
매일이광 장삼이는
오늘 오늘 오늘이라
매일 장삼 오늘이민
성도 연말 가실서냐.
영암 덕진산이
짚은 물에
덕진드리 놓아놓고
가는 사름 오는 사름
만민적선 받았수다.
경혀단에 남은 돈은
매일이광 장삼이는
저싱데레 가는 드릴 놓와
극낙세계 가셨수다.
매일이광 장삼이는
정싱부제 되엿수다
이싱부제 되엿수다.

<한경면 조수리 여무 54세 조 술생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11-612.